

16/02/21(주) 주일예배 / 제목 : 어려움 극복 비결(대하32:1~8) p.700 평행구절/ 왕하18~19장

(1)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4)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앗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5)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 극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중의 어떤 분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에 자살을 막고 소망을 심어주고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서론** / 지금은 IMF 시대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IMF 시대의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 악순환은 끊이질 않고, 굶직굶직한 굴지의 기업들은 속속 무너지고, 실직자와 신용불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를 떠나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장이 실수하면 우리는 함께 위험을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믿는 사람도 곤고한 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라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목적은 2가지로서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곤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곤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히스기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 /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 1.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동강이 난 유대나라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들은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과 재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놓은 왕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잘못된 왕 아래에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왕상18:5) 이 말은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지독하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믿음 좋은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아야였는데 그녀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 여성은 신앙으로 잘 자라 왕비가 되었고 히스기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녀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은 어머니가 끼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철저하면 아이 역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엄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부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이 잊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정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 나라가 복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앗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히스기야의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꼬여도 이렇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거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꼴 좀 봐라 그리고도 예수를 믿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잘된다더니 그게 잘된거야? 참 꼴 좋다 꼴 좋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회의감이 들지요.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걸까? 어찌보면 저 사람말이 맞잖아. 왜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거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마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불평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평안할 때처럼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나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진 않습니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합병을 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감봉되거나 혹은 실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인가요?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도 아니요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회사가 잘못되면 내가 당할 수 있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단 잘못하면 내가 실직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환란을 겪지 않는 근심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괜히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을 의심까지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전에도 그랬고 기도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3~5절) “(3)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뚝더러 (4)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앗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5)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본문에 나와 있듯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골몰히 생각하면서 부하들과 의논한 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수원에 물을 대기도 하고 식수로 쓰기도 했던 수로를 적군에게 물 구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하여 수로를 전부 묻어 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터널을 파서 그 기혼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예루살렘 성안으로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서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곽은 다시 증축하고 망대를 다시 손질했으며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거야’ 라며 기도원에 가서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는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만 하고 옆드려 있으면 안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열 번 두드려서 안되면 백 번 두드리고, 백 번 두드려서 안되면 천 번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 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낙망하거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1.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8절)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강한 확신으로 말하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한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궤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히스기야가 이 약속을 믿었기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전쟁이나 기근이 생겨도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된 것처럼 생각하고 밀쳐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자리에 거꾸로 믿음을 차 버리고 싶은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떤 어려운 위기 앞에 서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강한 믿음이 생기는데 막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면 감정이 앞서게 되어 감정은 불안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이성을 흔들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냉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점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위기를 대처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성에 근거한 냉정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나의 흔들리는 믿음인가? 를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1.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3.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21절) “(20)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앗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하19:20)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환란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역경을 호전시켜주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91: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란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5,000명의 앗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겨우 남은 몇 사람만이 도망갔는데 그나마 그들과 함께 도망간 왕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앗수르 군대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앗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앗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그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마음에 떠올리고 히스기야처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줄으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핵심** :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1.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3.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